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캔자스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전에 추가 지표 보기 원해”
- NYT: 연준 의사록,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보여줘
- WSJ: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거의 늘지 않았다
- WSJ: 미 경제 운명을 결정할 연준의 승패의 순간이 온다

####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금리 상승...파월의 ‘빅 컷’ 가능성 낮는데 베팅 중

#### [주택]

- FinacialYahoo: 7월 기존 주택 판매 상승...주택 가격 13개월 연속 상승

#### [미국 생활]

- WSJ: 인플레이와 과소비로 빚더미에 빠진 Z세대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양적 긴축이 전세계로 확대된다
- CNBC: 중국 “EU 전기차 부당한 관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전기차]

- WSJ: 자동차 업계, 전기차에서 후퇴한다
- Bloomberg: BMW, 유럽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질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공짜 와퍼, 월마트+의 아마존 프라임 따라잡기
- CNN Business: 맥도날드, 영국에 24,000개 일자리 창출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Fed’s Schmid Says He Wants to See More Data Before Rate Cut**

캔자스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전에 추가 지표 보기 원해”

**\*\* 참고: 오늘 목요일 보스턴 연준 총재는 ‘빠른 금리 인하 적절하다’ 언급함(속보)**

- 캔자스 연준 총재 Jeffrey Schmid는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을 결정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제 지표를 보기 원한다고 말했다.

- 어제 수요일 인터뷰에서 그는 연준이 계속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9월 금리 인하 여부 전에 향후 수주 동안 관련 지표들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이라는 것

### Bloomberg 기사

#### **NYT: Fed Minutes Show a Cut 'Likely' to Come in September** 연준 의사록,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보여줘

- 연준 관리들은 지난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그날 회의에서 9월 미팅 시 금리를 분명하게 낮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의사록은 보여주었다. 9월 17일부터 양일 간 열리는 회의는 미 대통령 선거를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 어제 수요일 발표된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리들은 관련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진행되면 다음번 미팅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그런데 7월 미팅 후에 고용주들 고용 실태가 예상보다 실망스러웠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되는 지표를 보였다.
- 이에 따라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내릴지는 관심사다. 투자자들은 0.25% 포인트 인하 것으로 대부분 내다보지만 0.5% 포인트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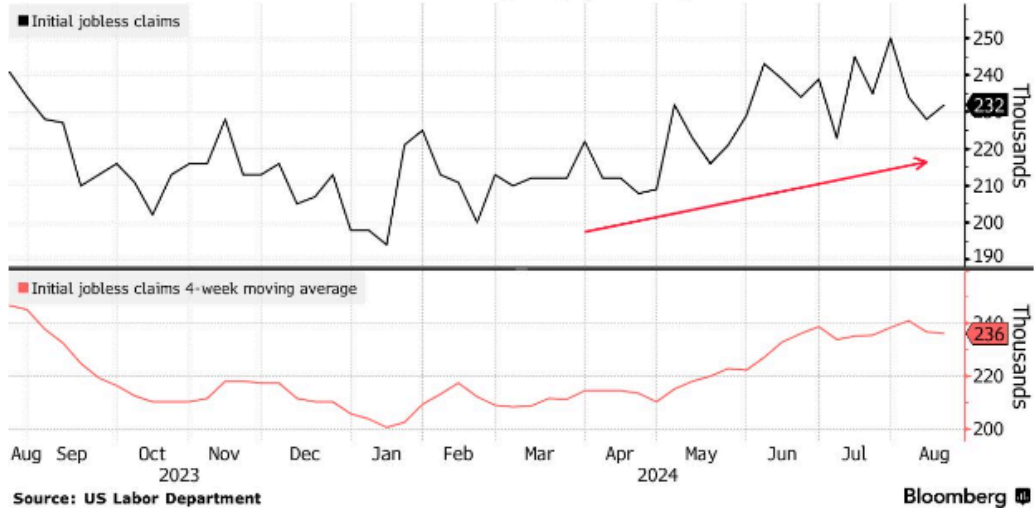
### NYT 기사

#### **WSJ: Applications for US Jobless Benefits Barely Rose Last Week**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거의 늘지 않았다

- 지난주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 노동 시장이 둔화되어도 아주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끝난 주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4천건이 증가된 23만2천건의 기록했다. 변동성을 줄이는 4주 평균 관련 건수는 월 단위로 가장 낮게 감소했다.
- 계속 실업 청구 건수는 총 1백86만건으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더 힘들어 지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US Initial Jobless Claims Barely Rose Last Week

Data showcase labor market that's cooling only gradu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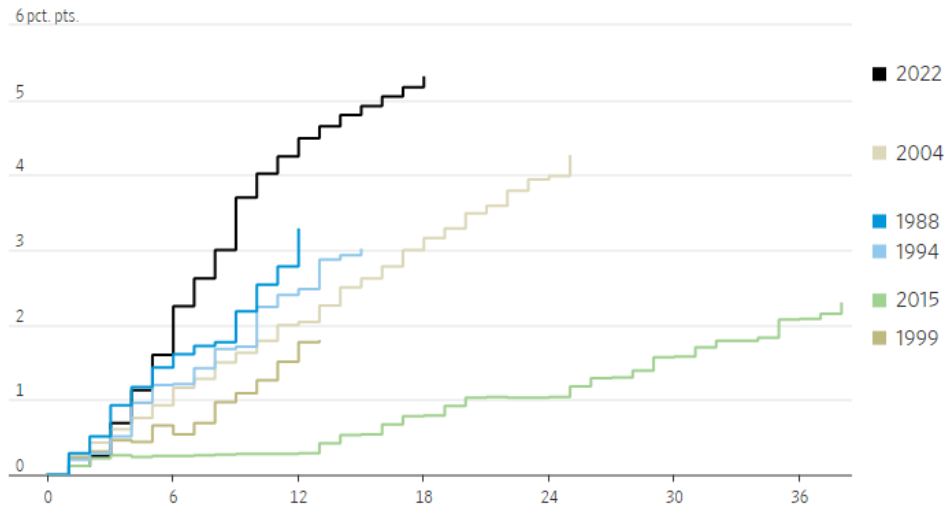
WSJ 기사

### WSJ: The Make-or-Break Moment That Will Determine the Economy's Fate

미 경제 운명을 결정할 연준의 승패의 순간이 온다

-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 2년동안에 설사 침체가 발생해도 금리를 통제할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현재 그는 경제 침체 없이 인플레이 싸움에 승리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향후 수개월 간이 중요하다.
- 그가 실업률의 큰 상승 없이 인플레이는 둔화 시키는 이른 바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 그는 연준의 명예의 전당에 역사적인 성취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제가 고금리로 인해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 파월 의장과 연준 관리들은 9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데 현재 물가 압력은 둔화되지만 노동 시장도 둔화되고 있다. 연준 관리들이 얼마만큼 20년 사상 가장 큰 금리를 낮출지 관심사다. 파월 입장에서는 연준의 인플레이와의 마지막 단계의 싸움이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 한편 JP모건과 웰스 파고를 비롯한 일부 민간 기관들과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노동 시장이 너무 많이 둔화되는 것 같은 지표들 때문에 연준 관리들이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Cumulative change in federal-funds rate since start of initial rate incr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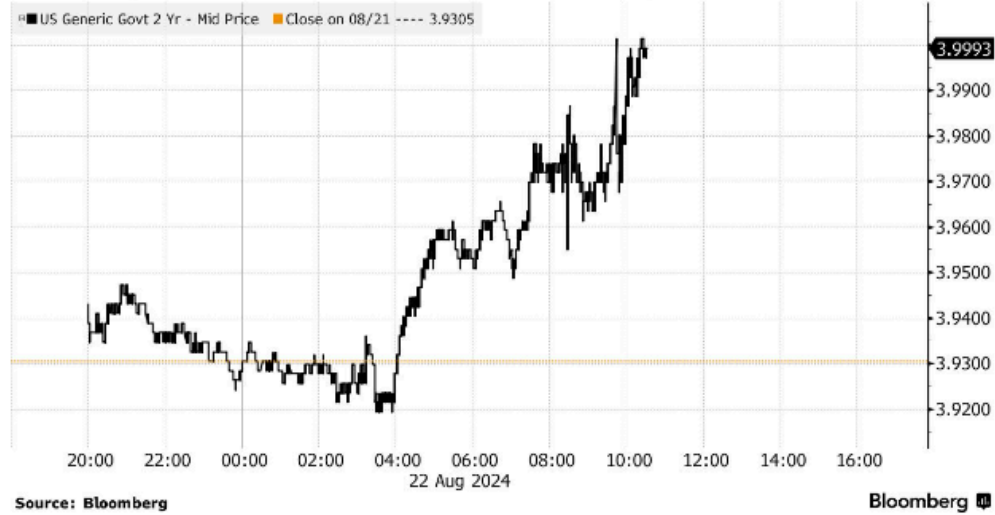
WSJ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US Yields Rise on Bets Powell to Downplay Big 미 국채 금리 상승...파월의 '빅 컷' 가능성 낮은데 베팅 중

- 연준의 금리 인하폭은 적겠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입장을 시사하는 데 베팅이 이뤄지는 가운데 주식은 목요일 현재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국채 금리는 상승 중이다.
- 이는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1% 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라는 것.
- 국채 금리는 상승 중인데 특히 금리 정책 결정에 더 민감한 단기물의 금리가 더 상승 중이다. 달러는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 S&P 500은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사상 최고치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Treasury Yields Climb Before Powell's Spe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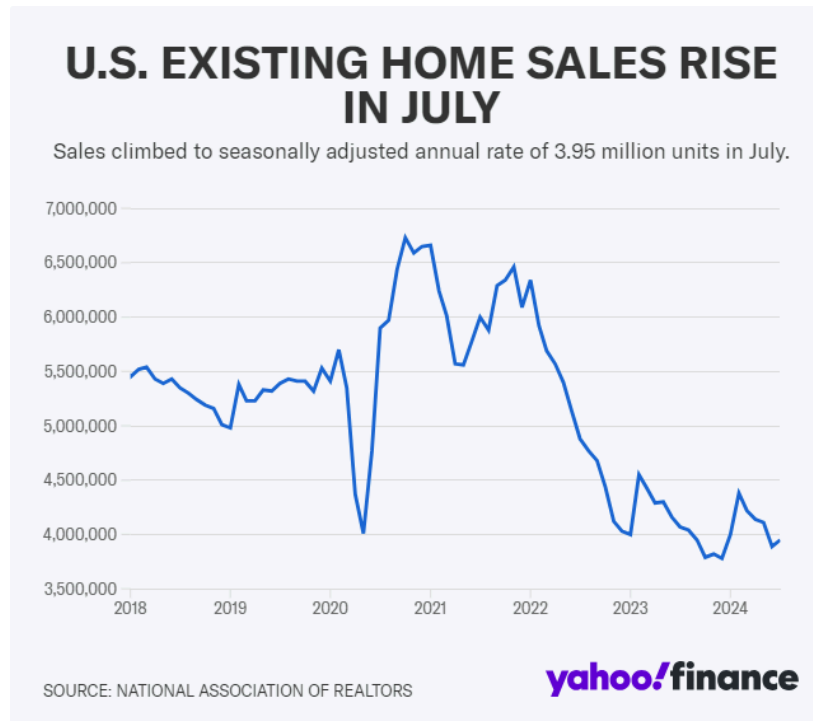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 [주택]

#### YahooFinance: Existing home sales rise in July, home prices jump for 13th straight month as mortgage rates moderate

#### 7월 기존 주택 판매 상승...주택 가격 13개월 연속 상승

- 지난 2월 이래 모기지율이 최저치를 보이면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기존 주택 판매가 7월에 상승했다.
- 7월 기존 주택 판매는 6월에 비해 1.3% 상승해 시즌 조정치로 연율 3백95만건을 기록했다고 전미부동산협회는 목요일 발표했다.
- 주택 중간 가격은 7월에 4.2% 상승한 42만2천6백불로 13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FinacialYahoo 기사

### [미국 생활]

#### **WSJ: How Inflation and Overspending Are Keeping Gen Z Stuck in a Debt Trap**

#### **인플레이션과 과소비로 빚더미에 빠진 Z세대**

-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빠르게 부채가 커지고 있다.
-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등 가장 젊은 대출 집단이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 10년 동안 미국 물가는 32% 상승했다. Z세대는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다.
- 그들은 월급이 부족할 때는 신용카드로 식비, 주거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
- 또한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Z세대가 불안감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로운 과소비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 3부로 구성된 팟캐스트 시리즈 “Z세대와 빚의 함정”에서 월스트리트저널 오디오 프로듀서 타데오 루이즈 산도발이 Z세대의 부채가 빠르게 늘는 이유, 그 속도를 늦추는 방법, 그리고 부채가 다른 세대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설명한다.

WSJ 기사

### [글로벌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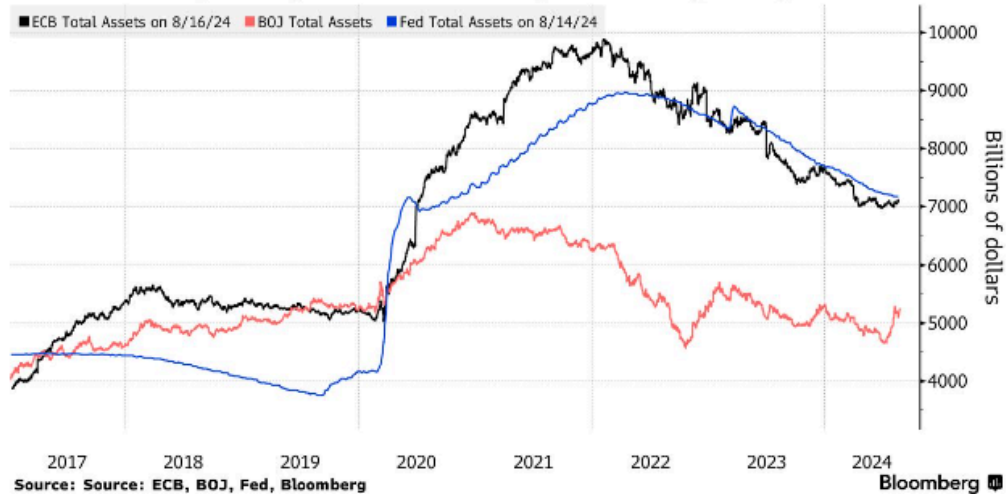
## Bloomberg: Quantitative Tightening Goes Global for the First Time, in Test for Markets

### 양적 긴축이 전세계로 확대된다

- 최근 주요 중앙은행들은 처음으로 양적 긴축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일본 은행은 향후 수년 간 채권 보유 포트폴리오를 점차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연준, 유럽중앙은행, 영국은행을 따라 밸런스 시트 축소에 관여하고 있다.
- 이른바 양적 긴축(QT)는 기본적으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팬데믹 위기 때 중앙은행들이 쏟아 놓았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다.
- 연준이 양적 긴축을 처음으로 실시할 때 정책 결정자들은 지난 2019년 자금시장의 혼란을 겪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이로부터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중단을 약속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현금 고갈에 직면한 상황에서 순조로운 운행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영국 소재 Standard Bank의 G10 전략 책임자인 Steven Barrow는 “연준에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중앙은행들은 아직 테스트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월가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경기 부양 차원의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양적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연준이 이미 채권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

### Quantitative Tightening Goes Global

BOJ is about to join Fed, ECB and others in quantitative tightening



Bloomberg 기사

## CNBC: China calls EU tariffs on EVs unfair, says it wi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defend industry

### 중국 “EU 전기차 부당한 관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중국 정부는 어제 수요일 전기차 관세에 대해 EU에 항의했다.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전기 자동차 산업 보조금에 대한 EU의 조사가 미리 설정된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은 중국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EU는 화요일 중국에서 EU로 수입하는 여러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를 낮췄다. 이러한 관세는 EU의 기존 전기차 관세 10%에 추가된다.
- 지난 6월 EU가 발표한 관세는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이 유럽 내 경쟁을 왜곡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해당 조치에 반대하며, EU와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CNBC 기사

## [에너지]

### WSJ: Auto Industry's EV Retreat Hastens 자동차 업계, 전기차에서 후퇴한다

- 포드 모터스가 이번 주 전기차 출시를 취소한 것은 업계가 전기차에서 손을 뗀다는 신호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과반수가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지만, 높은 가격과 충전 문제로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 특히 높은 배터리 가격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의 손실이 크다.
- 포드의 전기차 사업은 올해 약 50억 달러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에서 완전히 손을 떼진 않을 것이다.
-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중국 전기차와 테슬라의 폭발적인 확장 때문이다.
- 미국 정부가 새로 채택한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10년 내로 전기차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
-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저렴한 공급망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소형 전기차 베팅>
- 포드는 전기차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형 SUV 대신 소형 전기차에 베팅했다.
- 포드 CEO 짐 팔리는 “전기차는 큰 차량이 큰 이윤을 가져오지 않는다. 배터리가 클수록 가격 압박이 심하다.”라고 말했다.
- 보스턴 컨설팅 그룹 자동차 부문 파트너 아카시 아로라는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소·중형 전기차에,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 시스템에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투자 감소는 부품 공급업체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 이번 주 취소된 포드의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었던 마그나 인터네셔널은 새로운 고객을 찾거나 기대이익 증가치를 낮춰야 했다.
- 공급업체 Dana 최고 재무 책임자 티모시 크라우스는 “여전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미국 중요 산업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은 예측과 기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 **Bloomberg: BMW Pulls Ahead of Tesla in European EV Sales For First Time**

#### **BMW, 유럽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질러**

- BMW가 지난달 처음으로 유럽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질렀다.
- 컨설턴트 자토 다이내믹스의 자료에 따르면 7월 BMW 전기차 판매량은 1/3이상 증가한 14,869대였고,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은 16% 감소한 14,561대였다.
-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가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지른 사례이다.
- 유럽 전기차 구매는 작년 7월에 비해 6% 감소한 139,300대이다.
- 보조금 중단 및 축소,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에서 손을 떼는 중이다.
- Jato의 분석가 펠리페 무노즈는 “전기차 인센티브와 전기차 산업의 불명확한 미래가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 BMW는 i4와 ix1모델의 단단한 수요층 덕분에 비슷한 크기의 모델을 능가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 테슬라의 모델Y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모델이지만, 다른 4년 이상 된 모델들의 출하량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 BMW Passed Up Tesla Last Month in Europe

US brand still leads in EV sales on year-to-date basis

	July sales	Year-to-date sales	YTD change
BMW	14,869	97,525	+49% ▲
Tesla	14,561	178,700	-12 ▼
Volkswagen	12,213	88,445	-25 ▼
Volvo	10,533	82,585	+104 ▲
Audi	8,618	57,456	+3 ▲
Mercedes	8,365	61,058	+12 ▲
Peugeot	6,361	50,978	+7 ▲
Hyundai	6,292	41,208	+9 ▲

Source: Jato Dynamics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Free Whopper? Walmart+ Offers Cheap Burger King as It Chases Amazon Prime

##### 공짜 와퍼, 월마트+의 아마존 프라임 따라잡기

- 이제 월마트 플러스 회원은 버거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는 월마트 플러스가 아마존 프라임을 추격하기 위한 상품이다.
- 월마트 플러스는 이미 무료 배송과 파라마운트+ 스트리밍 서비스 무료 이용을 약속했다.
- 월마트는 다른 기업들의 구독 모델과의 경쟁, 식품 및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회원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 또한 넷플렉스와 아마존 프라임과 같이 기존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 이로 인해 월마트 회원 수는 약 800만 명에서 정체 된 상태였다.
- 지난 한 해 월마트는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한 마케팅과 혜택을 재정비했다.
- 월마트는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과 학생 할인을 추가했다.
- 그리고 이번 주부터 월마트+ 회원에게 버거킹 디지털 주문 시 25% 할인 혜택과 3개월에 한 번 공짜 와퍼 혜택을 제공한다.

- 월마트 책임자 베네츠 예이츠는 “월마트+는 월마트와 고객층이 비슷하다. 이들을 위한 혜택을 준비해야 한다.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회원들은 다른 식당보다 패스트푸드점에 두 배 이상 많이 지출한다. 버거킹과 월마트+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월마트 최고 수익 책임자 세스 달레어는 “월마트는 온라인 배송 서비스 개선도 노력하고 있다. 배송 월마트+의 핵심 성공 요소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 CNBC: McDonald's could create 24,000 jobs at new stores in UK and Ireland

### 맥도날드, 영국에 24,000개 일자리 창출

- 맥도날드는 영국과 아일랜드에 20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신규 매장 오픈은 2027년 말까지 전 세계에 10,000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해 미국의 글로벌 매장을 50,000개로 늘린다는 맥도날드의 계획 중 하나이다.
- CNN의 계산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영국에서 매장 수와 직원 수가 14% 증가하도록 계획했으며, 이를 위해 1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 그러나 개점 1년 이상인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 매출은 0.7% 감소했다.
- 미국 식료품 가격은 지난 한 해 계속 상승했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외식은 사치가 되었다.
- 특히 맥도날드는 작년 전국 평균 가격의 2배인 \$18짜리 빅맥 식사를 보여주는 SNS 게시물로 인해 많은 고객들에게 인플레이션을 악화 시키는 탐욕적인 기업이란 비난을 받았다.
- 영국에서도 작년 저가형 제빵 체인점인 그레그스에게 추월 당해 맥도날드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 달러화 대비 유로화 1년 만에 최고... "美 금리인하에 베팅" 엔화도 강세...엔화 대신 달러화 이용 '뉴 캐리 트레이드' 등장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1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로-달러화 환율은 이날 0.4% 상승한 1.1169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도 동반 상승해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러한 달러화 약세는 이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 인사 다수가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